위대한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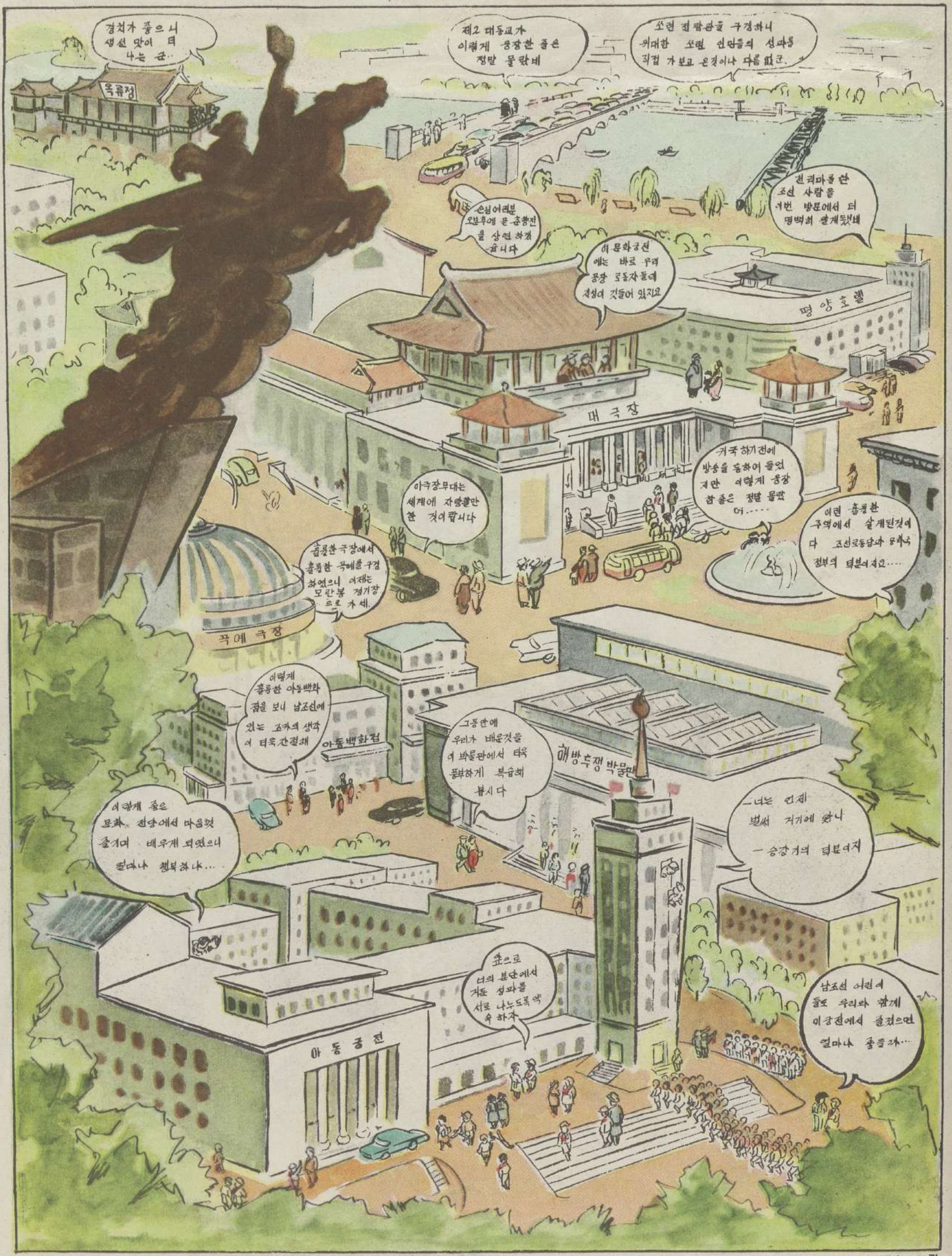
95 BF-2042
3 APR 11

화살

1960년 4월 하반호 (124)

송 용남 그림

8. 15를 계기로 본 평양 건설 전망도



홍 종호 그림

온 누리에 시위한다.

송 용남 그림

뿌리채 뽑아 버려야 한다

박 승히 그림

부화기는 있건만?!

—우리는 부화기를
이렇게 리용하고 있습니다.

함남도 신상군 복흥리 박 희준 그림

풀 속의 사과 묘목

벌 1 —야 사과 묘목에 집을 지면 안돼…
벌 2 —념려 말어 풀이 무성한데 뭐

허 능택 그림

발을 묶게는 보섭

함남 덕성군에서 각 농업 협동 조합에 배정한 보섭은 너무 무거워 쓰지 못할 형편이다.

허 능택 그림

잘도 찧는다! 엉덩방아

위원장님, 부지런도 하지?!
일년 열두달 출근은 백프로.
그런데 논밭에 나타나긴 가물에 콩나듯,
거의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무사 분주히 엉덩방아 잘도 찧는다.

마파람에 랭상 모판이 뒤죽박죽 되여도…
목장의 돼지우리가 쳐저 나가도…
이 의자에 털석, 저 의자에 털석,
심심풀이 코'노래에 장단도 맞추며
위원장님, 엉덩방아 잘도 찧는다.

그저 내리 먹이는 데야 일등이건만
방아 찧기에 성수가 나서
감자씨는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샘'골 밭엔 무엇을 심었는지
위원장님, 온통 그믐밤이라네!.

아무렴, 위원장님 아는 것도 많지요?!
(집체적 협의제가 민주주의적이라)고
툭하면 작업반장들을 부른다.
그러나 매양 이마'살을 찌프리고
지도보다 짜증, 욕설이 앞선다네

때로는 추궁에 사로잡혔는지?
추궁으로 하루'해가 저문다네.
작업반장들은 쓴 맛만 다시고
(함부로 얘기했단 복수를 당할 테니…)
모두 눈치만 볼 뿐, 함구무언이라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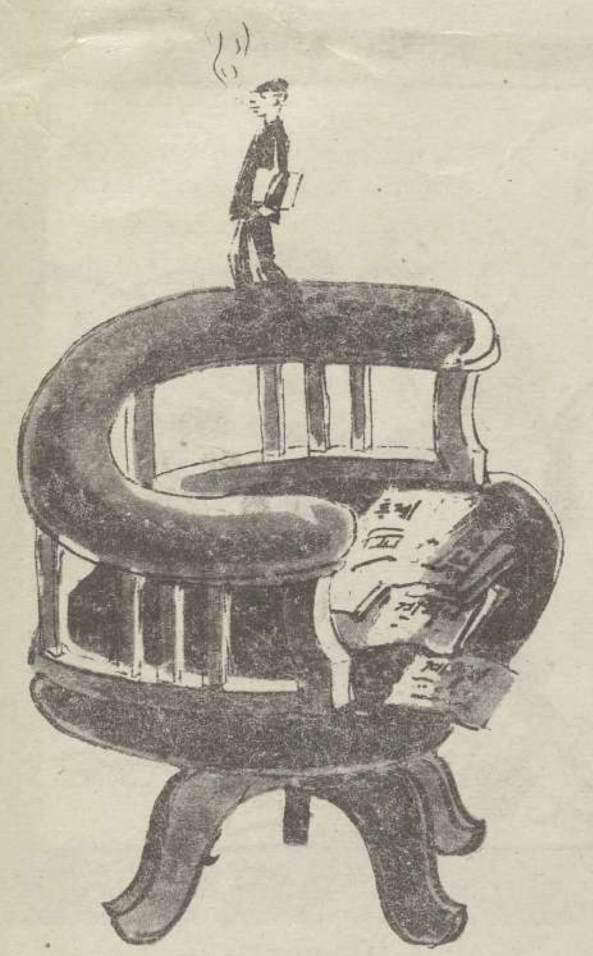
에익! 성미도 괴팍한 어른
일이 안되면 저에겐 책임이 있을소냐
식은죽 먹듯 간부만 갈아 치운다네.
생산 지도원은 세번째, 반장들은 두세번…
그러나 아첨쟁이에겐 양 같다네.

대문에 호랑이가 허비적거려도
내 때론 잠들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이런 어른의 관료주의만은
도무지 그대로 볼 수도 없어,
듣기만 해도 쓴 맛이 돈다.

—통천군 룡수 농업 협동 조합에서—

피 호주

현지 지도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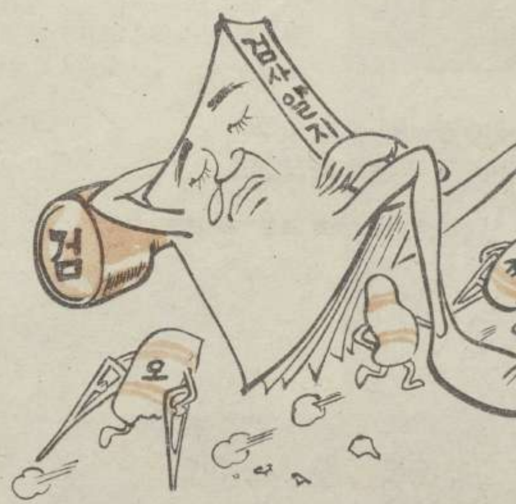
청진시 판해 중학교 차 종락 그림

설탕 사태

평양시 외성 구역 유아 식료 가공 공장 일'군들은 제품 생산에서 적지 않은 오작품을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설탕을 땅바닥에 흘려 랑비하고 있다.

원 광수 그림

무사 통과



원 광수 그림

홍 종호 그림

아버지의 초상화

소녀—너의 아버진 수염이 실감 있구나…
소년—응 우리 아버진 수염이 특징이야

함흥 미술 협동 조합 장 현채 그림

김책시 쌍포 중학교 주위 환경은 매우 불결하며 파리 떼는 이 학교 변소에서 봄을 맞고 있다.

파리들의 봄 맞이

함북도 김책시 도시 경영 사업소
정 광윤 그림

독자들의 편지에서

명답은 명답이다.

—에 무겁다…

태양과의 경쟁

최 영근 그림

《매상고》가 본 봉사성

평양시 중구역 신양 식료 상점에 각종 식료품들이 들어 오던 날—

《도매 치기》로 넘겨 받은 손님들이 물건을 걷어 싣고 떠난 후 《일반 손님》들이 상점에 밀려 들었다.

이 때는 벌써 판매원들의 표정이 불 친절한 태도로 변해진 때였다.

《그것은 벌써 죄다 팔렸어요》

어느 판매원이 나와서 이렇게 톡 쏘아 부치는 바람에 손님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우둑허니 서고 있었다.

《아니 이제 상품이 잔뜩 들어 오는 걸 보구 오는데…… 이 상점이 언제부터 《도매 상사》로 변했나?……》

중구역 신암동에서 온 한 아주머니는 이렇게 빈정대고 돌아 갔다.

옆에 섰던 손님들도 판매원의 눈'살과 신경질이 시끄러웠던지 《그냥 돌아 가는 수밖에 없군!》 하고 가버리는 것이 였다.

그러나 식료품 상점에서는 《도매 치기》 방법을 《도입》한 후부터 별반 상점을 자주 열지 않았어도 《매상고》는 《비상》히 높아질 수가 있었다.

상점 일'군들은 어떤 물건은 상자채로 그냥 넘겨 주는 데서 돈 머리가 높아지고 《매상고》가 올라 가는데 그만 흥이 났다. 이러다 보니 시간성을 요구하는 어떤 상품들은 수요자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상점 매대에서 희생되는 일까지 생겼다.

하루는 병원에서 위생 검열원이 상점을 찾아 왔다.

《아니 이 생동태 조림이 얼마나 팔렸어요?》 하고 위생 검열원이 물었다.

판매원은 넝큼 대답했다.

《글쎄 그 생선이 어쩐지 잘 나가질 않아요…》

《이 생동태는 변질돼서 팔 수가 없게 되였소》 하고 위생 검열원은 섭섭한 말을 던졌다.

상점 일'군들은 《매상고》가 걱정돼서 가슴이 몹시 쓰렸으나 생동태 조림은 판매 중지가 되고야 말았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자체 리용 생산 주방》까지 위생 관리가 어떻게 불 철저했던지 생산 중지를 당했다.

이래서 안일한 판매 방법과 철저하지 못한 상점의 위생 관리와 불 친절성이 그만 한 군데 엉키고 말았다.

《봉사성》 하나면 이 세 가지 문제는 스스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서 득창

누구를 소개 할까?

우리 조합 청년들 중에는 농업 기수 세근이와 뜨락또르 운전수 또 운전수가 되려는 동무와 작업반장도 있지만 내가 소개하려는 동무들은…

—얼굴이 이상하게 변한 태식이와

—자기 성격은 도시에만 적합하다는 정희

—그리고 이렇게 《령리》한 성수들이다.

평북 일보사 허 성필 그림

산'길 우에 피는 꽃

송 용남 그림

천리마 기수들의 보람찬 생활

송 시엽 그림

경무대의 냄새

김 희주

늘 그렇지만 경무대의 일기는 스산하였다. 새벽부터 경무대 부근에서는 뭇개들이 요란히 짖어댄다.

—웬 일일고? 꼭두 새벽부터 뭇개들이 짖어대니…또 시위인가? 승만이가 죽지나 않을까?

애리스는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이때 옆에 있던 《내무부 장관》이 아양을 떨면서

—《국모님》 걱정할 것 없습네다. 《정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경무대 주변에는 슬하의 군경들을 3천 명이나 풀어 놓았삽고 린근 100 메터 안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하게 《초 비상 경비》를 쳐 놓았삽는데…매일 일어나는 백성놈들의 시위 폭동도 진압하였사옵는데……개들이야 몽땅 쏘아 죽이면……

—오, 그것 안됩니다. 시위하는 백성놈들에게는 몰라도 개를 총살하는 건 절대로 안됩니다. 승만 그것 알게 되면 큰 봉변 당합네다. 승만이 개 몹시 사랑합니다.

사실 리 승만은 개를 몹시 좋아한다. 심지어 한때는 토시와 헬괴라는 개를 양자로 삼았다가 세상의 웃음'거리로 된 적도 있었고 그 늙은 개가 이따금 《북진 북진》하고 짖어대는 것도 그의 애견 사상의 표현이라고 항간에는 소문이 자자하였다.

—《국모님》 근심할 것 없습네다. 우리 한국에 심리학 박사, 수의 박사가 얼마든지 있습네다. 왜 갑자기 개들이 경무대에 모여 드는지 그 원인을 연구해 내면 돈을 많이 준다고 광고를 냅시다. 광고를…

멋 없이 뚱뚱한 《보건 사회부 장관》이 애리스에게 아첨을 부렸다.

며칠후 경무대에는 개에 대한 연구문들이 가득 찼다. 우편 배달부는 신이 나서 경무대를 드나 든다.

—여봐라, 거 누가 있느냐?

자빠져 자던 승만이가 눈을 뜬 모양이다.

—이 등신 같은 놈아, 신성한 경무대에 웬 배달부가 소란하게 드나 드는고……앙?

—예, 예,

할 뿐 승만의 《비서》는 황송한 나머지 대답도 채 못한다.

—개 가지고 그런다지…앙? 개들은 내가 좋아하는 짐승이다. 당장 진정시키지 못할까?

—비서 아뢰옵네다. 대통령 각하! 진정하십시요, 개들이 소란한 것은 배달부 탓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그런답니다.

—뭐? 배가 고파서…개들이 배가 고프면 왜 이 경무대로 밀려 들고…앙?

—황송하옵니다. 연구문의 결과에 의하면 경무대가 한국을 다 말아 먹었으니 여기로 모이면 먹을게 있다구…

—뭐이 어째? 내가 한국을 말아 먹었다구? 지어 개밥까지 떨어 먹었단 말이냐? 이 개자식들아 앙? 그래 또 말해 봐라,

—각하! 용서 하십시요, 연구문을 그대로 전하겠사오니 《개들이 경무대에서 소란하게 짖는 것은 경무대에 살인 강도놈들과 도적놈들이 모여 있는 까닭이다》라고 합네다.

—뭐이? 내집에 살인 강도놈들이 있다구?

—각하! 지난번 선거 때에 백성놈들을 죽인 순경들과 미군이 경무대에 드나 드는 것을 그 개들이 냄새를 맡은 모양입니다.

—아이구! 개들한테까지 내가 살인 강도놈으로 인정 받다니…이 미친놈아! 연구문이란게 도대체 뭔가?

—각하! 죄송합네다. 경무대에서 개가 너무 소란스럽게 짖기에 《국모님》과 의론하여 광고로써 수집한 것입네다.

—뭐이…광고? 이놈들아, 내가 개 하나 다스릴 힘이 없는 줄 알고 광고까지 내였단 말인가? 아이구! 내 얼굴에 똥칠을 하는구나…이놈들아!

리 승만은 경련이 일어 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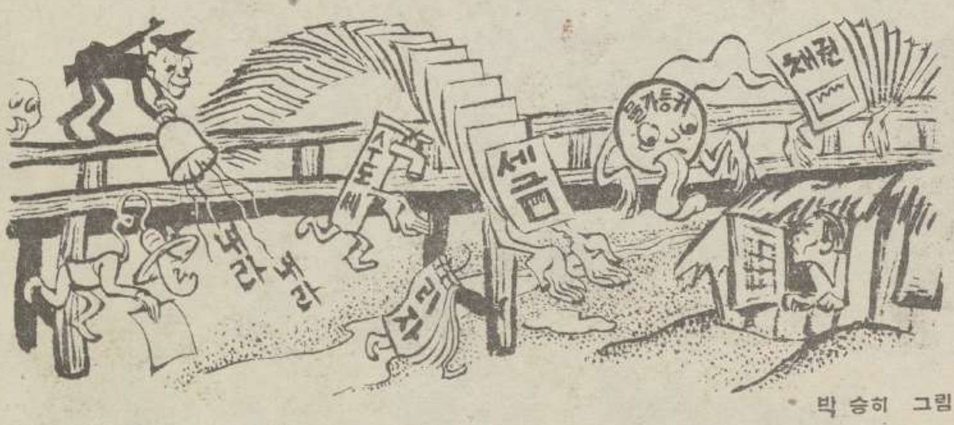
—각하! 저는 연구문을 그대로 읽을 뿐입니다. 《서울에 있는 수의 박사까지 짖어대는 개들을 잡아 실험을 해 봤다. 개코에는 송장 냄새가 몹시 풍기고…》

—뭐이? 송장 냄새가?…이놈들아! 《빨갱이》들의 조작이다. 모두 잡아 넣어라, 아이구…흐흐…

늙어 빠진 늙은 개 승만은 그 자리에 쓸어졌다.

밤에는 밤 도깨비

낮에는 낮 도깨비



박 승히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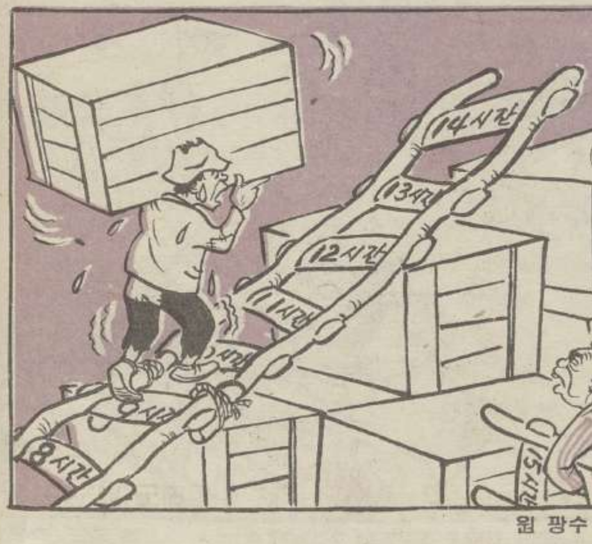
박 승히 그림

내가 들어갈 곳은 아무데도 없구나

박 승히 그림

—1년이나 밀린 것이 되여 소화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일할수록 늘어 가는 시간



원 광수 그림

리 승만의 정치 도구

리 춘수 그림

타 격

박 승히 그림

자멸을 재촉하는 자의 망동

백 인규 그림

송장 대수술

허 능택 그림

미국 호전 장군들이 빈번히 남조선에 드나 들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리 승만의 입에서 《북진》 나발 소리가 더욱 빈번히 울려 나오고 있는바 조선 인민은 누구 하나 그 따위 소동에 놀라지 않는다.

궁지에 빠졌다

백 인규 그림

불길한 인계

—어이 마산 형편이 어떤가?
—보는 바와 같네

최 영근 그림

선거후의 《잔치》

박 내숙

어느날 경무대에서는 기묘한 《축하연》이 벌어지고 있었다.

정면에 마련된 붉은 《룡상》 옆에 주그리고 앉아 있는 키가 작고 눈섭이 길고 가무 잡잡한 늙은이는 리 승만의 장차 후계자인 리 기붕이다. 그의 전면 오른쪽에는 《내무 장관》, 《서울 시장》, 《공보 실장》이 앉아 있고 왼쪽에는 《대한 반공 청년 단장》을 비롯하여 서울과 지방의 어깨패 두목들이 자리 잡고 있다. 말석에는 보따리를 낀 한 두 명의 낯선 사나이들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더니 측근자들에게 둘러 싸인 리 승만이가 침대차에 실리여 방안으로 들어 왔다.

—각하! 선거사상 류례 드문 찬성률로 당선되신 각하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아첨과 거짓말을 전업으로 반생을 살아온 탓으로 허리가 곱사등이처럼 굽어 들고 입술이 종이'장처럼 얇아진 《공보 실장》이 고개를 수그렸다. 그가 오늘 《연회》의 주선자였다.

—이번 선거에서 누가 공을 많이 세웠느냐?

—각하! 공개 투표와 비밀 개표를 철저히 보장한 경찰의 공으로 아룁니다.

《공보 실장》이 조아리면서 《내무 장관》에게 눈짓을 했다. 《내무 장관》은 고개를 끄떡였다.

—각하, 말썽 많은 백성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군말 없는 유령 선거인을 수없이 등장시킨 《서울 시장》의 공로도…

《공보 실장》의 말에 《서울 시장》도 끄떡였다.

어깨패들도 어깨를 들먹거렸다.

—밖에서는 시비'군들을 후려 갈기고 투표장 안에서는 거치장스러운 야당 참관인과 선거 위원들을 모조리 들어낸 우리들도 제몫은 했습죠.

—헤헤…여기도 있습니다.

그때 뒤에서 보따리를 들고 있던 사나이가 사람들 사이로 머리를 내밀었다.

—너희들은 누구냐?

리 승만은 눈이 휘둥그래졌다.

—헤헤, 저는 남대문통에 사는 인쇄소 주인 올시다. 3천만 매의 위조 투표 용지는 바로 우리 인쇄소에서 찍어냈습죠.

—그리고 저는 그 옆집에 사는 도장방 올시다. 저희들은 투표구와 개표구들에서 2중으로 사용한 선거용 도장을 인감 없이 새겨서 자유당 나리들께 은밀히 넘겨 주었습죠…헤헤

—모두 충신들이로다. 자네들의 공을 따져서 시상하도록 할 것이다.

그때 《공보 실장》이 리 승만에게 다가가서 무슨 말인지 귀'속 말로 소곤거렸다. 리 승만은 소리를 질렀다.

—마산 서장 왔느냐? 너는 왜 폭도들을 제때에 진압 못했느냐?

—각하…죽자하고 애를 다 썼습니다.

—직무 태만이야 사표를 내!

—…

—내무 장관! 자네가 이번 선거에서 일은 잘 했다만 폭도들을 제때에 진압 못한데 대해서는 책임이 있느니라!

—저도… 사표를…

그때 《자유당 국회 의원》들이 우르르 방안으로 몰려 들어 왔다.

—저희들 일행은 방금 경상도 일대에서 백성들의 동향을 탐지하고 오는 길입니다. 각하! 민심이 험악합니다.

—자유당 간부들은 다방 출입도 못하겠습니다. 대구서 다방에 들렸다가 군중들 한테 포위되여 맞아 죽을번 했습니다.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데 그중 한 자가 갑자기 량팔을 벌리고 고함을 질렀다.

최 영근 그림

—난 자유당 그만 두겠소. 맘 놓고 잠도 못 자겠소 남한은 어디가나 시위요 원통 란장판이요.

리 승만은 금시에 눈이 휘둥그래졌다.

장내에는 동요가 일어 났다. 어깨패는 뒤'걸음질을 하고 도장방은 보따리를 웅켜쥤다. 접시와 술'잔이 깨졌다. 장내는 수라장으로 변하였다.

아까부터 눈만 껌벅거리고 있던 리 기붕은 떨리는 손으로 리 승만을 잡았다.

—각하! 백성들은 모두 빨갱이 물이 들었습네다. 우리는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요. 이대로 앉아 죽느니보다 북진이라도 웨치다 죽읍시다.

—나발을 가져와!

리 승만은 손을 저었다.

《공보 실장》이 벽에 걸려 있는 찌그러진 나발통을 벗겨서 그의 입에 물렸다.

나발통에서 갈린 소리가 들릴락말락 간간이 새여 나왔다.

—남한은…충분히…강력하다…본…본인은…불원간…북진…할… 계획이다…북…진…북…

그러나 소리는 더는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놀라서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각하!…아니 이게 어찌된 셈이야? 나발을 부시더니 그만 기진맥진해서 까무러치셨구나…

5.1절《휴가》깜빠니야

로 철

5.1 절을 전후하여 미국 로동자들 속에서 빈궁과 실업과 기아를 반대하는 파업과 시위가 고조되는데 당황 망조한 반동 지배 계층은 야수적으로 로동 운동을 탄압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계급 의식을 마비시켜 보려고 또다시 《인민적 자본주의》란 거짓 선전에 혈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상업 자본중 90%가 전체 주민의 5%도 못 되는 자본가의 손아귀에 있는 미국에서, 그리고 인구 8명중 평균 1명은 빈민굴에서 살고 있는 미국에서 과연 누가 이런 《선전》을 고지 듣겠는가!

—대통령 각하! 야단 났습네다! 탄압도 우리 《선전》도 다 효과 없습네다. 로동자들 파업, 시위, 5.1절을 맞이하여 더욱 더욱 심해만 갑네다!

—뭐이? 파업이? 시위가? 아이구…. 미스터 닉슨! 이거 어떻거면 좋습네까? 나, 작년, 강철 로동자 파업 때 아주 아주 혼난 경험 있습네다.

—저도 그 경험 많이 많이 있습네다.

—아이구…. 이거 어떻거면….

—각하! 별 도리 없습네다. 로동자들 공격 더 심해지기 전에 우리 자본가들 모두 피난 보내는 수 밖에 없습네다.

—피난? 얻어 맞기 전에 주랑당 제일이라 그말이지? 그 참 좋은 것 같습네다. 그런데 어데로? 어데든지 로동자 다 있지 않습네까? 반공호로나 피난?

—정부에서 돈 내 주고 《휴가》라 이름 붙여서 모두 먼 산과 바다'가에 보냅세다.

—《휴가》? 그거 안됩네다! 로동자들 그것 알면 더 들고 일어납네다. 《휴가》는 커녕 우리들, 로동자들께 일요일도 안주고 하루 11, 12 시간씩 일시키고 있지 않습네까? 아니! 그랬다간 더 큰 봉변을…

—아닙네다, 각하! 념려 없습네다. 로동자에겐 우리 미국 정부, 이미 해마다 400만명 이상씩 《휴가》 주고 있으니까…

—400만명 이상씩 《휴가》? 아, 아, 아니, 그것, 우리 실업자 두고 말하는거 아닙네까?

—그러나 각하! 오늘날 미국에서 실업이라는 것, 다만 사람들 《의식 속에만》 남아 있고 그것은 미국식 《휴가》의 일종이라 하면 되고…

—흠, 나, 그 비슷한 연설 한 기억 있습네다…

—그러니 자본가들 《휴가》 보내 마땅하다고 법령 발표하면 되지 않습네까? 흐,흐…

—흐—ㅁ! 당신 말한 그 《공산주의적 자본주의》 말이지, 헉, 헉,…. 매우 좋습네다! 인차 법령 발표합세다. 헉,헉….

× × ×

그후 며칠이 지나서, 해'별 눈부신 미 시간 호수에서 있은 일—.

호화로운 유람선 우에서 개기름이 번지르한 대 자본가 두 놈이 빨가숭이 몸으로 장의자에 누어 해'별을 쪼이고 있었다.

—록펠러 씨! 당신도 피난 오셨습네까?

—피난이라니? 나, 정부 법령으로 《5.1절 휴가》 왔습네다. 로동자는 실업으로 《휴가》하고 우리 자본가는 《공장에서 일하는 로동자 마찬가지》 됐으니까 《휴가》하고… 쿤렉 씨! 《인민적 자본주의》 아닙네까? 히,히,…

—게다가 법령도 있겠다, 로동자들, 여기까지는 우리들 쫓아 오지 못할 것이고…흐,흐… 아이젠하워, 일, 참 잘합네다, 흐흐…

이때 별안간 덜컹! 하고 유람선이 요동을 치는 바람에 히히, 흐흐 웃고 있던 자본가 두 놈은 텀벙 철석! 하고 그만 호수에 꺼꾸로 곤두 박이고 말았다.

아이구…사람 살리오! 야, 이 배'놈들아! 배'전에서 웃고 섰지만 말고 사람 좀 살려! 너나 나나 다 《인민적 자본주의》 하에서…아이구… 사람 좀 살…

그러나 선박 로동자들은 태연하게 대답하였다.

—여보! 자본가 제씨들! 떠들지들 마오! 우린 배를 세워 놓고 가겠소! 로동자들의 5.1절 총파업이란 말요, 알겠소? 그럼 《5.1절 휴가》를 잘 지내길 바라오! 당신네 정부 말대로 《자본가들도 로동자 마찬가지》라니까 당신들도 로동자 답게 《파업》을 해 보아야 하지 않겠소? 비록 물'속에서이지만, 하,하….

—하,하,……

파업 홍수

최 영근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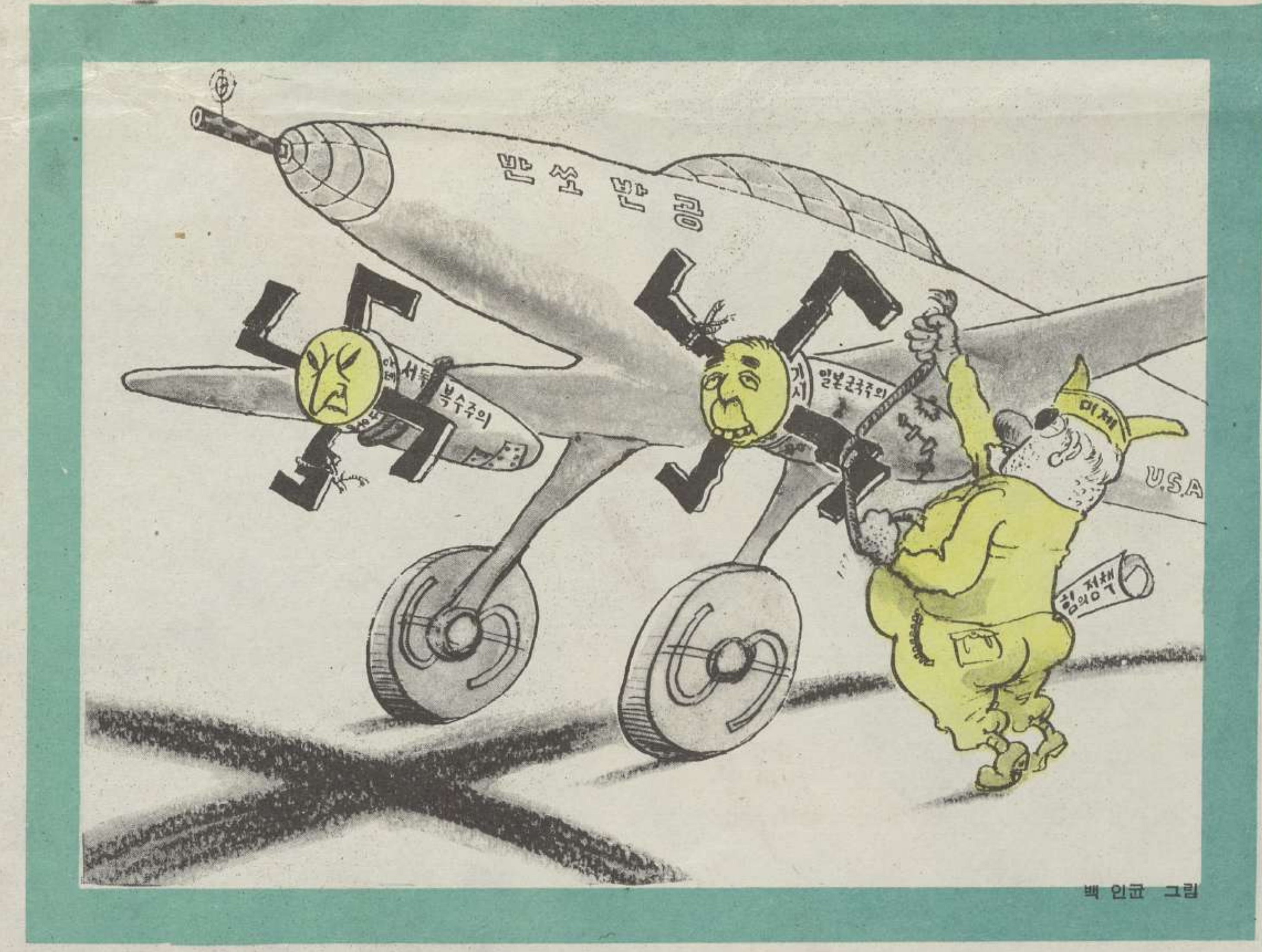
쓰레기통에 모여든 쉬파리들

송 용남 그림

최근 미제는 또다시 국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킬 목적으로 비률빈에서 영국과 리 승만, 장 개석, 비률빈, 타이 등을 참가시킨 《미국—아세아 공군 전투 사격 훈련 연습》을 감행하였다.

위험한 발동기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과 서독을 재 무장시켜 그와 함께 불장난을 해 보자는 무모한 광대 놀음을 하고 있는바 그 자체가 걷잡을 수 없이 약화 몰락되고 있는 제국주의의 멸망 과정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다.



백 인균 그림

앉을 수 있는 땅은 한 치도 없다

송 용남 그림

편집 위원회

발행소 국립 미술 출판사 ㄱ—15406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행 1960. 4. 20 (값 40전)

쥐구멍을 찾는다

8034
Хвальсаль

ПЭК 8
ул. Чайковского
д. 19/21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осольству
10 1-12 №8034

조 명식 그림